

토론문

박 영 애 전 성남시의원

저는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애입니다. 오늘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성남시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시정방침 아래 민선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복지 청사진을 그려나갈 성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민선8기의 시작과 맞물려 제5기 성남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 복지정책과의 관련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신 분들과 제5기 보장계획 책임연구원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준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쁜 상황 속에서 성남의 맞춤형 사회복지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발표는 민선8기 새로운 사회복지를 시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료를 읽어보면서, 성남시의 현재 사회복지의 수요와 공급, 지역자원에 대한 흐름과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1. 변화하는 주민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융합

첫 번째는, 성남시 사회복지자원의 지역 욕구에 맞는 통합과 융합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자원과 관련하여 발표 자료와 그 외에 성남시 홈페이지 등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이 699개가 있습니다. 이 중 성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만 20개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인구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지금, 새로운 기관과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목적복지회관은 오랜 시간 시청 노인복지과에 속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돌봄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 노인 등 대상자를 넘어 지역의 ‘돌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기관들을 ‘구별’ 또는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통합을 위한 필수 체계 컨트롤타워와 정보 플랫폼

두 번째는, 성남시 사회복지자원의 통합과 융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정보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공공과 민간 자원들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정보센터/DB) 구축과 지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관 서비스 컨트롤타워를 통해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센터링크’처럼 주민이 한번 방문하면 사회복지 + 보건 + 주거 + 건강보험 + 세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3. 주체와 영역을 뛰어넘은 연계와 협력

세 번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부서와 영역을 넘어서는 연계와 협력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자면 주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지역의 자원들에 대한 통합과 융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부서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부서 간의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령 1인가구 지원사업이나 돌봄사업이 단순한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욕구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서가 먼저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기관 또한 장애인, 노인의 영역이 아닌 ‘돌봄’의 주제로 지역사회가 권역별 묶음으로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아를 키우는 직장인으로, 함께 사는 부모가 최근 치매판정을 받았다면 경우 어느 기관에서 상담해야 할까요? 독거노인이면서 치매어르신이라면 1인 가구지원센터가 담당일까요? 독거노인지원센터일까요?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일까요? 이처럼 대상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상들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성남시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때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선8기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돌봄센터 구축

마지막으로는 민선8기 성남시민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발표자료에 있는 성남시 맞춤형돌봄센터 정책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다만 성남시 맞춤형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합니다.

성남시 맞춤형돌봄센터는 성남시의 급변화는 인구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와 품질 향상도 고려할 수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이용자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촘촘하고 두터운 성남시의 복지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